

1/15/17

설교 제목: 참 하나님을 섬겨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40 장 12-31 절

(사 40: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뿔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사 40:13)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사 40: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절관주** 욥 38:4, 고전 2:16

(사 40: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절관주** 사 17:13

(사 40:16) 레바논은 땀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사 40: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절관주** 사 29:7, 사 30:28

(사 40: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 40: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 40:20)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절관주** 사 44:10

(사 40: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 40: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사 40:23)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 40:24)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사 40: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사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절관주** 시 147:4

(사 40: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 40: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 40: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 40: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절관주** 렘 49:26, 암 8:13

(사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1980년대 후반쯤 MBC에서 방영된 '완장'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윤흥길 작가가 1983년 발표하여 현대 문학상을 수상한 장편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로 정치 권력의 포력성을 고발한 풍자극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투기로 돈 풀거나 만지게 된 졸부 최사장은 널금 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 거기에다 양어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어장 감시를 동네 건달이자 한량인 임종술에게 맡깁니다.

임종술은 양어장 감시원으로 임명되어 완장을 받자마자 당장 완장을 두르고 즉시로 마을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 앞에 안하무인격으로 군림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머리가 쯤 마을 사람들 몇 명은 갑자기 임종술에게 붙어 부역합니다.

건달 임종술이 그깟 양어장 감시원되었다고 완장차고 우쭐거리며 의시대는 모습.

양어장 감시원도 권력이라고 거기에 붙어 이익을 좀 얻어 보려고 부역하는 사람들.

드라마가 자체가 감동스러웠다기보다는 권력의 폭력성과 권력에 부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구역질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완장의 결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존중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대통령이 된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직 부도덕을 한꺼번에 모아 놓은 권력형 비리 백화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무능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그 더러운 권력에 부역하여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으며 호위호식하고 산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도 청문회를 통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의 결국은 감옥소행일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권력에 부역해 축적한 부와 권력이 부럽기는 커녕 그토록 헛된 것에 미친듯이 빠져 목매달고 살면서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들의 인생을 돈과 권력의 꼭두각시로 어이없이 소비해 버린 그들이 참으로 안됐고 측은해 보입니다.

이제라도 이들이 참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참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가치있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참 권력자가 되시나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 40: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바닷 물을 측량하고 누가 광대한 하늘의 크기를 재었는가?

누가 땅의 흙을 되에 담아 재었고 누가 저 높은 산들과 언덕들의 무게를 저울에 달았는가?

이런 것을 다 재고 달아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 40:13)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사 40: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의 지도도 가르침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상의없이 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44 장 24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 44: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찢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 40: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사 40:16) 레바논은 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사 40: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열방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권세가 있어 보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이방 나라들, 곧 앗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열방은 물 한방울 같고 작은 티끌 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이방 권세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단 4: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천지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것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이 뜻을 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 40: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 40: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 40:20)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사 40: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누구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놋에다 금과 은을 입혀 만들었거나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수광스럽고 헛된 일입니까?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들 다시말해 현대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로는  
 세상의 권력, 돈, 육신의 쾌락, 지식, 과학, 자식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그 어떤 것들도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을 그 수효대로 만드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붙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느 신이, 어느 우상이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난 후 감격에 젖어 부른 찬양시  
 중 일부입니다.

(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오직 참 하나님 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왕 신을 섬기려면 가짜가 아닌 진짜 신,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최고의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직접 말씀합니다.

(사 40: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내 길과 내 송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의 연한이 차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해 주시되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서 받아야 할 징벌은 반드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 40: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철과 능력으로 선하신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사 40: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 40: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제 아무리 강하다 해도 누구나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 것이며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고난으로 지칠대로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푸른 창공을 훨훨 날게 될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치으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아니 알고도 외면하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으로 징계를 주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오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혹시 자신의 죄로 인해 온 것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 같으나 분명히 살피시고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시 9:4)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하다’(카바)는 ‘함께 묶다’ 또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인 앙망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양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양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감 같이 높고 멀리 솟구쳐 올라가고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리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